從來의 補土와 흙두께흙은 진흙을 主成分으로 하였었는데 今番에는 防濕、防草를 위하여 剛灰 진흙을 50%씩 混合使用하였고 原來의 바닥기와가 大槪 二枚疊되어 있는 것을 大部分으로 三枚疊로 改葺하는 한편 용마루 등의 끝에 종래대로 회벽을 양성하였다。 보수전에는 三층만은 四面에 夫莫斯瓦를 끼었었을뿐이었던 것을 三층 전반에 막새와를 잇도록 하고 그외 기와골에는 牙口土를 단단이 물려 놓았다。 二、三층에는 破瓦와 餘裕材를 利用하여 落水面에 덧기와를 깔게하여 雨水가 직접 葺瓦面에 接觸하지 않도록 意圖하였다。

처마곡선이 교란된 부분은 모두 평고대와 연함을 갖바꿔하면서 矯正하였고 몹씨 처진 部分의 椽木은 道里目에서 바로 잡았다。 갖바꿔材는 椽木以外 春楊木으로 使用하였고 各 部材마다에 補修年月日을 墨書하였다。

補强鐵은 各種을 具備하고 各이음새와 接續部分을 더 以上 弛緩하지 못하도록 堅固히 結索하였다。

丹靑工事는 周圍色과 調和되도록 하였는데 지난번 丹靑工事時 從事한 技能者가 今番工事에 再從事하게 되어 無難히 施工할 수 있었다。 活柱에는 防腐의 目的을 위하여 들기름을 四回塗하였다。

工事는 事故없이 進展되어 十月 十七日 竣工을 보게 되었고 十八일 檢査가 完了되어 全員 金山寺에서 撤收하였다。

이 工事期間中 느낀 것은 근소한 예산이지만 從事者가 積極的인 協同과 精誠을 傾注하면 所期의 目的 以上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文化財를 아낀다는 生覺이 크게 作用하였음도 注視될 점이라 하겠다。

金剛門(正面一間 側面二間)은 寺入口에 建築된 조그만 建物인데 現在는 門으로 使用되지 않고 單只 殿閣처럼 쓰여지고 있으며 內部에는 金剛神像이 掛置되어 있다。

外部 正面에는 「母岳山金山寺」라는 從額이 걸려 있다。 寺蹟記에 依하면 李朝明宗十一年에 再建되었고 宣祖三十一年에 兵火에 燒失된 것을 宣祖四十年에 重建되었으며 肅宗十年과 正祖二十年에 再次補修되었다고 하는데 建物의 拱包에는 中期以前의 橫式을 가진 첨차가 混在하고 있어 注目된다。 建物은 一見 보잘것 없는 것 같으나 細部를 보면 그렇지도 않으니 後日 詳細한 調査가 期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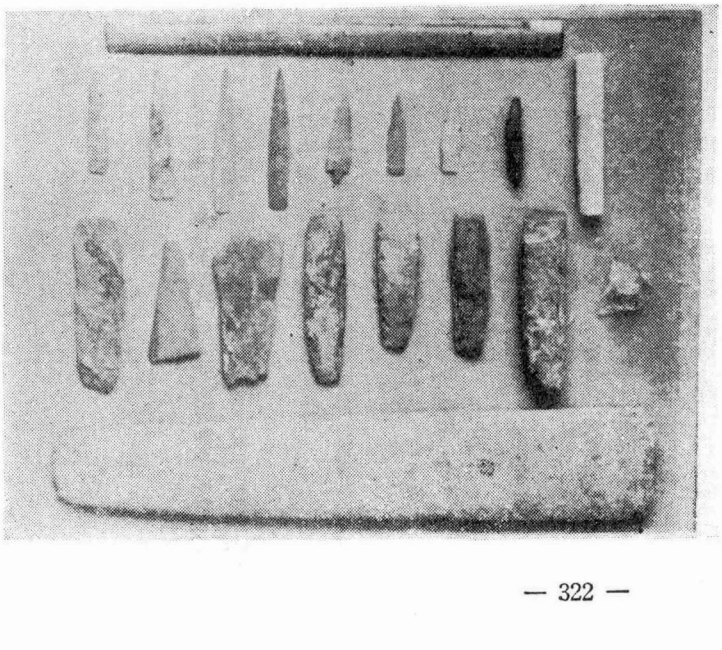
春川校洞 穴居遺蹟 發見遺物

—第三卷 第十二號 通卷二十九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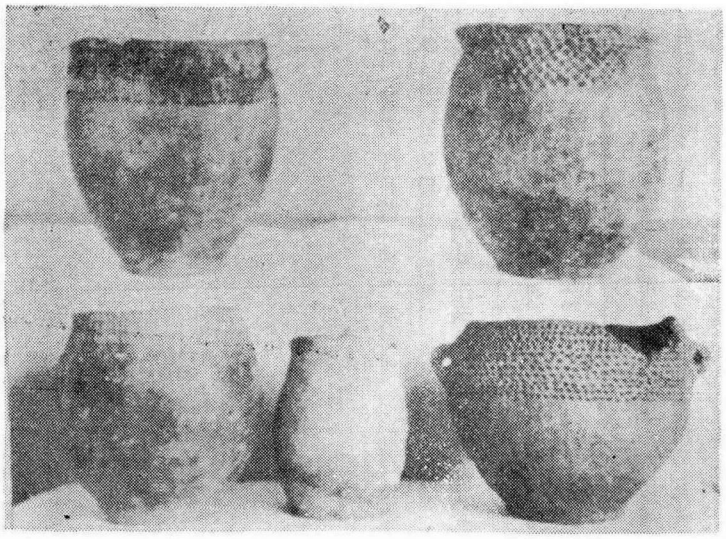
—交洞文化의 性格—

金 元 龍

今年 十月 六日 春川市 校洞 鳳儀山 中腹 東側斜面에서 聖心女大 運動場 工事中 石器時代의 穴居住居址가 發見되고 그 속에서 人骨三人分과 함께 石鑿(單刃石斧) 五、石鏃 七、石鑽 一、石刀子 一、三角形扁平石器 一、石斧 一、石槌 二、管玉 一、有文土器 四、無文土器 一、그리고 水晶片、白瑪瑙片 等 二十四點餘의 一括 遺物이 發見되었다。



鳳儀山은 海拔 三〇〇m로서 洞穴이 發見된 位置는 山頂에서 約一〇〇m 低位置며 穴口는 北쪽을 向하고 있다。 洞窟은 風化花崗岩層을 人工的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며 至今 窟內面積은 約 四m 直徑의 圓形으로서 그 앞에 若干길이의 窟道가 있었던 모양



이나 工事로 因해서 窟의 一部와 함께 잘리워나간 것 같다。 天井高는 約 二m로서 全面에 油黑色 끄름이 붙어있다。 이 洞穴은 元來 山頂에서 내려 오는 溪川에 向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溪谷面이 上昇하면서 住居로서 不適當하게 되어 拋棄墓地化한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土砂石塊로 因해 穴口가 埋沒되었다가 이번 削土工事로 因해 다시 窟이 露現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人骨은 窟內에 堆積한 細土위에 半露出하고 있었으며 모두 伸展葬、石器、土器類가 入口가까운 爐址附近에서 發見된 以外에는 아무 伴出遺物이 없다。 人骨은 採集時의 不注意로 거의 原形을 모를 程度로 破碎되었으나 成人의 骨이 分明하고 齒冠같은 것은 土砂속에 묻혀 磨滅된 것처럼 腐朽하고 또 一部 骨片에서는 炭化의 進行이 보이고 있다。

石器는 玄武岩、片岩、砂岩、粘板岩、花崗岩 等을 使用하고 있으며 管玉은 白瑪瑙製로서 길이 十一㎝의 大形이다。 石器中 扁平磨石斧는 長四〇·八㎝ 刃部幅 七·六㎝의 巨大한 것으로 그 長大化한 것은 多分히 東北式이다。 特色을 이루고 있는 것은 半磨製石鏃들인데 이러한 石鏃은 서울以北 西海岸一帶의 櫛文土器遺蹟에서 나오는 礫石剝片製系統으로서 平壤 晴湖里、廣州 渼沙里에서 시작해 楊州 水石里의 櫛文、無文混合遺蹟으로 連結되는 系統의 石器다。 石鏃은 一例를 除外하고는 모두 三角扁平鏃이며 이런 三角鏃도 元來는 岩寺里에서 보다싶이 櫛文土器文化에서 始作되어 西海岸一帶에 퍼진 形式이다。 또 三角形扁平石器는 本來 시베리아石器系統인 擦切法을 쓰고 있는 것이 興味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發見되는 이러한 石器의 새로운 發見이다。 圓筒形石鑽은 이 窟안에서 따로 白瑪瑙原石片이 發見된 것과 아울러 여기 校洞人들이 使用한 하나의 攻玉器라고 생각된다。

土器는 櫛文土器의 特徵的인 口緣部文을 남기고 있으나 器腹文이 消滅하고 바닥도 平底로 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며 卵形器身과 함께 例를 들면 咸北 油坂의 櫛文土器의 器形과 通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말하자면 이 櫛文遺物은 石器에서는 西海岸系면서 한편 土器에서는 東北式性格을 띄고 있으며 그 두 文化가 漢江上流에서 合쳐진 混合文化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文化를 나는 校洞文化라고 命名하고 그 土器를 校洞式土器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이 校洞文化의 時代는 石器時末期라고 보는 바이며 以上 여러 問題에 對한 더 仔細한 考察에 關해서는 震檀學報二十四輯에 揭載될 報告論文을 參照하여 주기 바란다。

灘隱의 問月圖

崔 淳 雨

灘隱의 人物圖에 關해서는 本誌二卷二號에 故 澗松이 自藏한 問月圖 一幅을 紹介하면서 그의 人物圖의 稀貴함과 그 手法이 出衆함을 讚嘆한 一文으로 그 佳作의 存在가 알려진 바 있다。

澗松이 그 論考의 末尾에서도 「筆者로서는 처음보는 灘隱人物圖의 紹介를 끝내거니와 日後 다시 어디서든지 灘隱의 山水圖나 人物圖같은 作品이 나타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希求하신 바와 같이 이 待望의